


일곱 교회 시대와 일곱 인 사이의 틈

(The Breach Between
The Seven Church Ages And the Seven Seals)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이곳 주님의 집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게 됨은 무한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아주 큰 은총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는... 일곱 교회 시대와 일곱 인 사이의 틈이란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2 오후에 저는 한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의 뜻이라면, 올 여름에 언제, 만약 하나님께서 절 본향 집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면, 다시 돌아와서, 해외에 가거나 다른 일이 없으면, 저는 마지막 일곱 나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는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게 될텐데, 그것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3 그래서, 오늘 밤, 조용한 가운데...저는 오늘 밤 약간 늦게까지 설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기로 돌아오자마자, 지금... 저는 피닉스에서 설교를 많이 했지만, 한 번도 목이 쉰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 세상에, 저는 얼마나 열렬히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믿기로는, 저는 스물 일곱 번의 예배를 인도했는데 목이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후때문에 목이 쉰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단순히, 여기에서는 목청이 나빠집니다, 골짜기 지대여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돌아와서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았는데, 제 말 뜻을 아시겠죠, 목이--목이--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든... 애당초 좋지않은 목청을 갖고 있습니다.

4 한 의사 친구가 한 번은 무슨 이상이 있나 보려고 제 목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말하길,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하고 말하면서, “성대가 딱딱해졌을 뿐이야. 원인은 설교때문이지”하고 말했습니다. 음, 저는--저는--저는 그 말이 맘에 듭니다, 아시겠죠. 설교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5 자, 우리는 바울처럼 매를 맞아 생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닐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설교함으로써, 나쁜 일들에 반대하여 외침으로써, 하나의 표적을 지닐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지금까지도, 더 이상 얻어맞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

6 선생님들, 몇시입니까?라는 설교를 읽었거나 들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아시죠, 선생님들, 몇시입니까? 그것은 저를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듣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구입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좀 괴롭혔습니다.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Eng.p. 60)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 주일이나 십 일 전,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저... 저는--저는--저는 설교나 다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뭔가 나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7 어느날 아침 일찍, 저는 써비너 캐년(Sabino Canyon)에 올라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집에서 30분 내지 40분만 차를 타고 가면 써비너 캐년 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면 48km 되는 길이 산 속으로 나 있습니다.

8 거기는 이상한 곳입니다. 저는 온도가 27내지 32도 되는 여기 이 사막에 있다가, 30분 후에 그 산 꼭대기에 이르면 눈이 2미터도 넘게 쌓여 있는 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영하 7도나 2도 되는 피닉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영장을 따뜻하게 해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를 타고 40분 거리에 있는 플래그스텝에서는 영하 18도였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상기류와 사막의 차이입니다. 저는 천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는 무척 건강합니다.

9 그런데, 자, 저는 그 협곡으로 올라갔습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저는--저는--저는 거기에 앉아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기타 여러가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뭐랄까 괴로웠고, 무엇을 해야할 지 몰랐습니다.

10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저는--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황홀경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환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환상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고는, “주님, 이 폭음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고 이 피라밋 모양으로 벌무리 지은 일곱 천사들이 저를 땅에서 들어올려 동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1 저는 기도하면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가 제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일은 아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제 손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봤더니, 그것은 한 자루의 검(劍)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본 진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날뿔은, 아시다시피, 날뿔은 손이 베이지 않게 보호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펜싱을 할 때 말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병도(刀)의 칼날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면도날 같이 날카로웠으며, 반짝반짝 은빛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예쁜 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제 손에 꼭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참 예쁘구나!”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말야, 나는 항상 검을 무서워 했는데.”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와같은 칼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에 산다는 것에 대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전 칼을 무서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저는, “내가 저걸로 뭘 하나?”하고 생각했습니다.

12 손에 그것을 쥐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 왕의 검이다”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검은 사라졌습니다. (Eng. p. 61)

13 그래서, 저는--저는 “그것은 그 왕의 검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음성이 ‘한 왕의 검’이라고 말을 했다면, 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음성은, ‘그 왕의 검’이다 라고 말을 했어.”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런 권리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세상에는 오로지 한 분이신 그 왕이 계신데 그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검은 이것이야. ‘양 쪽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아시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아시겠죠? 그런데 전--전 생각하기를...

14 제 생각에 펜싱할 때, 아시다시피, 저는 펜싱에 대한 용어를 한 마디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 펜싱 원리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칼이 가로질러치고. 그리고나서 마침내, 두 칼이, 만일 두 칼이 엉기면, 원수와 여러분은 칼을 이렇게 맞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결투 중인 두 사람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칼이 저의 심장을 제 칼이 그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칼이 서로를 칠 때, 모아지듯이 그 두 검은 엉깁니다. 상대방을 밀어내려 그 검으로 상대의 심장을 곧장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15 검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원수의 심장에 칼을 겨누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그것은 ... 라고 믿는데,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다 말하고 하나도 감추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롭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곧 뭔가를 깨달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제가 계시되기를 바라고 있는 뭔가를 말입니다.

16 자, 이 책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불리우는 책

의 5장을 펴 봅시다.

17 자, 내일 밤은 첫째 인입니다. 처음 네 인은 네 말탄 자에 의해서 열려집니다, 각 인마다 이 땅을 치는 말탄 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의 설교는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여섯째 인에 대하여...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아마도 상당히 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좀 쉴 수 있는 약간의 여유를 드릴 것입니다.

18 우리는 여기에서 평일날 밤에는 일곱 시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7:30에 강단에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정에야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설교를 한 시간 더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습니니다, 저는 그냥... 저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19 왜냐하면, 저는 첫째 말 탄 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둘째, 세째, 네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모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기로,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Eng.p. 62)

20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상들은, 여러분은 나타내라고 허락을 받기 전에는 어떤 것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집으로 가십시오. 아마 모자가 여기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나 다른 누군가는 그 모자가 여기에 놓여지기 전에는 병이 낫지 않을 것입니다”하고 말하는 것을 몇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 모자를 거기다 옮겨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식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다가 옮겨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정렬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21 그러니 이제, 기도하고 계십시오. 자, 그 책으로 접근하기 전에, 머리를 숙이고 그 분께 얘기합시다.

22 주 예수님,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 이 책을 계시로 나타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분이 지금, 영혼들이 시간의 목적지에 매달려 있는 가장 거룩한 이 시간에 당신의 종의 연약한 노력에 축복을 내리시면서 앞으로 나오시기를 구하지 않고는 결코 이 신성한 책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땅이...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땅이, 그 말씀이 그 곳에 떨어져서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찬양을 당신 홀로 받으시옵소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 오늘 밤 말씀에서 음식과 물을 찾게 해 주옵소서. 계시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23 자, 5장을 열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일곱 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곱 교회 시대와 일곱 인 사이의 틈입니다. 그런데 역시 6장에서...

24 아니, 계시록 4장에서는 참 교회가 올라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뭔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계시록 3장에서 올라가서 계시록 19장 이전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참 교회는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대화를 나눈 거의 모든 성경교사들의 생각과는 반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제가--제가 의견을 달리 하고 싶어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저는 여러분의 형제가 되기를 바라지만, 저는--저는 제가 보는 그대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다 함께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환란 전에 올라가든지 후에 올라가든지 간에, 저도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25 그래서, 우리가--우리가 추측하고만 있는 그런 일들은, 왜냐하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듭니다. 저는 현재의 것을, 아니면 구약에서 내내 있어왔던 일을 찾아 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 또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신약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노아가 환

란이 시작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도 전에, 에녹은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룯은 환란의 조짐이 보이기 전에, 멸망 전에 소돔에서 불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소돔 밖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예표입니다.

26 이제, 우리 1절을 읽읍시다. 제가 5장의 처음 두절이나 세절을 읽겠습니다. (Eng. p. 63)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
거나 할 이가 없더라(얼마나 굉장한 책입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
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27 자, 합당치 않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에
도 합당치 않고,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말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
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
을 취하시니라

28 우리는 계시록 5장 7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29 계시록 10장에서 일곱 우뢰(천둥)가 소리를 발할 때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책은 나타내집니다. 그것을 적어 두시겠다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 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30 유의해서 보시면, 그 천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는, 언약의 천사로 불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 교회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곧바로 오시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같으며

31 여러분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천사를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분입니다. 천사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교회는 휴거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니 휴거 직전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참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잘 보십시오. (Eng.p. 64)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32 자, 여기에서, 그 책은 닫혀지고 인봉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열렸습니다. 계속 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밤 알아볼 인봉의 시기이후, 이제 그 책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한 작은 책... 그것은 펴졌습니다. 오, 불기둥같은 태양.. "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기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33 우리는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임을 압니다. 여기서는 그는 어린 양인데, 여기에서는 그는 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34 그런데, 요한은 본 것을 적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이자 선지자인 그는 그것을 적으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35 자,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시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우뢰들이 말한 것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 손을 들고, (자, 들어 보십시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니

36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원하는 절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

37 자, 아시겠죠,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책의 비밀은 일곱째 교회 시대의 천사의 메시지가 소리내는 날 나타내질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기 시작하고 있고,” 쓰여져서 나온 설교들이 있고, 우리는 그 설교를 테이프에 녹음하고 책자

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소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비밀은 그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잘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책은 일곱째 천사의 메시지가 소리내어지기까지는 나타내지지 않습니다. (Eng. p. 65)

38 그런데, 이 점들은, 제가 확신하기로는, 일곱 인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9 그런데, 그것은 비밀로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아십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그것은 책인데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그것은 구속의 책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구속의 책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은 여섯 교회 시대들을 통해서 계속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일곱째 천사가 그의 비밀을 소리내기 시작할 때에, 그는 이들이 연구해 온 모든 미해결된 부분들을 다 매듭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이나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비밀들 즉 뱀의 씨나 다른 어떤 것이든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40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것들을 조작해 내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THUS SAITH THE LORD)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책에서 그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메시지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선포되어온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일곱째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의 소리가 나는 날, 모든 교회 시대를 통해서 연구되어온 미해결된 부분들이 모두 다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41 그런데 일곱 인들이 떼어지고, 비밀이 나타내어질 때, 그 천사가, 사자가, 그리스도가 발을 땅과 바다 위에 두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두르고 내려 오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오실 때, 이 일곱째 천사는 땅 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42 세례 요한이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그 때에 메시야가 오신 것처럼. 요한은 자기가 그 분을 소개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그 분을 만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3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라기 4장에서, 요한과 같은 한 사람, 한 엘리야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게 되는데, 그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나타내고 자녀들의 믿음을 사도시대 아버들의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이 교파 교회들에 의해 여러 해 동안 연구되어온 이 모든 비밀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에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그것은, 기록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44 자, 우리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책은, 이제, 구속의 비밀임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속의 책임입니다.

45 자, 이 사자가 소리내는 바로 그 때, 모든 비밀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땅 위에 천사가 있고, “또 다른” 한 천사, 힘센 사자가 내려옵니다. 보십시오, 이 천사는 지상의 천사 즉 사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언약을 뜻하는 무지개, 아시겠죠,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그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Eng. p. 66)

46 계시록 1장에서, “벽옥과 홍보석처럼 보이는 무지개를 두르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계시는 분”과 똑같습니다.

47 그리고 여기 10장에서 그 분이 돌아오셔서, 오신 후에, 그 때는 모든 비밀이 이루어지고, 인들이 떼어지며, “더이상 시간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비밀들은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 천사가 나타날 때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48 일곱 인은 그 책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곱 인 안에 봉해져 있는 것을 보기 전에는, 그저 그 내용물을 추측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제가 단순함 속에 감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짧은 메시지 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짜로 성령이 계시로 나타내주고 똑같이 입증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라고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나 모든 진술과 사건들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들을 지켜보고, 아시겠죠, 경계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49 그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 일곱 인들은 그 책을 개봉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책은 완전히 개봉된 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그 책은 일곱 인이 떼어질 때까지는 완전히 봉해진 책입니다. 그것은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곱 우뢰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그 책을 봉한 일곱 인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그 일곱 인들은 일곱째 천사의 메시지가 있기까지는 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짜 계시는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때, 입증된 진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말씀이 말한 것입니다. “비밀들은 그 때에 다 이루어지리라.”

50 그리고 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 그 책은 여기 계시록 5장에서는 닫혀있었는데, 계시록 10장에서는 펴져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51 이제, 그 책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고, 인들을 떼고, 그 책을 열기전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해야만 합니다.

52 그 책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누구든지, 땅에 있는 누구든지”,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주(州)장로나

누구든지간에, “어린 양 외에는 그 인들을 떼거나 그 책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 조사를 했고, 추측을 했고, 걸려 넘어졌고, 궁금하게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혼돈 가운데 폭 빠져 있는 것입니다.

53 그러나 이 구속의 책은 어린 양이 완전히 열 것이고, 그 책의 인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Eng. p. 67)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해서 인들을 떼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그 책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아와 그의 오른 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 책을 취하십시오! 오, 그것은 대단히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한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54 어떤 교파도 그 책을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책을 해석하시는 분은 어린 양입니다. 그 책을 말하시는 분도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말씀을 입증하고 살아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십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까지는 계시되지 않고.

55 이 책은 교회 시대와 교파 시대가 끝이 날 때까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시간이 없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시대와 교파 시대가 끝이 난 후에야 나타내집니다.

56 그래서 오늘 밤 그것이 좀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한 조그만 교리를 내세우고, 한쪽 여기로 달려가서,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교리를 내세우고 이쪽 끝으로 달려가서,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것 아래서 교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종류가 수백 여개나 되는 교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교파 안에서, 여러분은 혼란을 보십니다. 사람

들은, “무엇이 진리인가?”하고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까!

57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시간이 끝나갈 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것이고, 그때 그 책이, 그 때에, 나타내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58 그런데, “아무도...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59 그러나, 그들은 비밀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일 수 있는가! 어떻게 성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하고나서 돌아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시겠죠? 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브가 사과를 먹고 온 세상에 파멸을 초래했는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비밀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어지리라고 약속되었습니다.

60 그것은 작은, 미해결된 끝부분들입니다... 이레노라든가 마틴, 성 마틴이라든가 폴리콧이라든가 루터나 웨슬리, 이런 모든 위대한 전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나와서 빛을 가져와서 비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은 많은 것들을 어둠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루터 시대처럼 오순절 시대가 왔고, 그들은 가지들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 좋습니다, 그들이 옳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Eng. p. 68) 설명되어질 수 없는 미결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왜죠? 인이 떼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61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모든 비밀들은 해결되어 건네질 것입니다. 이 인들이 어린 양에 의해서 열리고, 참교회에 나타내어지고, 그 다음엔 시간이 더이상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책은 구속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

62 우리는 어떻게 십 사만 사천이 들어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63 그런데, 그런데, 바울은. 조금만 읽읍시다. 저는 성서구절을 여러 개 적어 왔는데, 좀 읽어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열어봅시다.

64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적고 계시는군요. 책을 갖고 오셔서 성경 구절들을 적고 연속되는 성경구절을 성경에 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나서 집에 가셔서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연구하신다면, 아시겠죠? 그것을 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공부해 보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65 자, 제가 여기 적어온 성서구절을 읽읍시다. 에베소서 1:13-14.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습니까?

66 자, 우리 성경책이 펴 있을 때, ...합시다. 보십시오, 여기서 성령은 그 자체가 인(印)입니다. 성령은 인입니다. 그런데 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끝마쳐진 일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개개인에게 있어서 인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 그가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그의 신음의 때는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끝마쳐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67 저는 철도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우리는 통조림공장에서 나오는 통조림과 다른 여러가지 것들을 화물칸에 싣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차가 봉합되기 전에, 검사관이 그 차가 적당하

게 적재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보려고 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브래넨형제가 손뼉을 한 번 친다--주] 처음에 다 함께 쑤셔 넣고 아무렇게나 해 놓으면, 물건들이 흐트러지고 깨어지는데, 그러면 철도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관은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적절히 놓여있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험을 하곤 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그는 그 곳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사관의 맘에 들 때까지 처음부터 그 일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Eng. p. 69) 그리고나서 검사관의 맘에 들면, 문을 닫습니다. 검사관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는 문 위에 인을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무도 이 인을 땔 수 없습니다.

68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는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과 ... 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저는 방언을 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완전히 만족하고 그들이... 라는 것을 알 때까지 성령은 그 사람을 조사합니다.

69 그 다음에, 그들은 영원한 목적지까지 인침을 받습니다. 그 인을 땔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성서구절을 적어두십시오. 에베소서 4:30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 “구속”이라는 말을 붙들고 계십시오, 아시겠죠. 구속의 책이 나타내어지고 구속주가 그의 소유를 찾으러 오실 날까지!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령을 근심케하지 마십시오.” ...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책은 지금 인봉되었고, 여러분도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 인입니다.

70 인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말들은 사전에서 뜻을 찾은 것들입니다. 인은 “끝마쳐진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신비스런 인물로 봉해진 하나님의 비밀은 그 인이 떼어질 때까지, 그리고나서 그것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71 만일 어떤 사람이 그 화물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러이런 것일거야. ... 일거야.”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인이 떼어지고 문이 열리면, 그 때는 안을 들여다 보고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마지막 때에야 행해질 것입니다.

72 인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는 “소유권”입니다. 아시겠죠, 인은 그 위에 표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소유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댓가로 산 것이 되고,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더이상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도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73 또 다른 의미는, 인은 “보장”입니다. 인은 여러분이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저는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인은 그 목적지까지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 인을 떼려고 애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런데 성령의 인은 떼어질 수 없습니다.

74 여러분은 사람들이, “마귀가 절 이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하고 말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다면, 마귀는 그 인치심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마귀에게 갔습니다. 아-아. 마귀는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밟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ng. p. 70) 마귀는 구원을 받고, 성결케 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되면 마귀는 여러분의 형제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마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경계선으로 가서 세상 것들을 욕심내면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 안으로 쪽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은 자아의 사망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75 자, 보십시오, 자, 이 책은 인봉되었고, 그리고--그리고 여러분도 구속의 날까지 그 책과 함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76 다시,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그 곳을 봅시다. 그러면 이 내용의 배경을 알게 될거고, 각자가 그것을 직접 읽으면 좀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성서구절을 드리면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몇 구절을 더 봅시다. 자, 8장, 로마서 8장 22절부터 시작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77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이 구절은 우리 나이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일은 첫째 부활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연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가 올바르게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음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새 세상에 대해 말하는 새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78 며칠 전에, 아내와 저는 슈퍼마켓엘 갔습니다. 저는, “이상한 일도 다 있군. 한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어”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그들은... 거의 모든 여자들은 치마를 입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된건지,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그들은 일부러 등한히 합니다.

79 그러자, 미다가 제게 말하기를, “빌, 왜 그렇죠?”했습니다.

80 저는, “오, 그것은 이 나라의 영이오.”하고 말했습니다. “독일에 가면, 그들은 어떤 특정한 영을 가지고 있소. 핀란드에 가면, 그들도 그 나라의 영을 가지고 있소. 미국으로 오면, 우리도 이 나라의 영을 가지고 있소.”하고 말했습니다.

81 우리나라의 영은 유희적인데, 농담을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와싱턴이나 링컨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지도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반에서 떨어져 이동했고,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원자탄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제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자신을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Eng. p. 71)

82 그것은 제게 무엇이 생각나게 하나면, 마치 이 코메디언들이 내려가서 이런 농담을 해가며, 법석을 떨어대는 것과 같고, 남녀가 함께 법석을 떠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어떤 소년이 묘지를 지나가면서도 겁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믿게하려고 휘파람을 불며 가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분명히, 그 애는 겁이 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는 어느 누구도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휘파람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는 자기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83 그러나 오,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그것은 양손을 들게 합니다, 우리의 구속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손을 들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때는 믿는 자에게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84 그런데, 이런 일들, 우리 몸 안에서 신음하는 것. 여러분 나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무는 살고 싶어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동물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을, 모든 것을 지켜 보십시오, 자연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 성서 구절을 통해서 인

간과 땅에 모두 뭔가 없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종류의 피조물이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감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이유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이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잉크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85 바로 그런 식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인을 찾아내기 전에는! 저는 처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환상은 꼭 필요한 것이고 특출난 것입니다. 환상은 마음의 비밀을 나타내고 여러분에게 어떤 실수를 했는지와 해야할 일을 말해 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약을 아무리 많이 드시고, 머리 위에 기름을 아무리 많이 붓는다해도, 아무리 크게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것입니다. 제가 “그”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86 보십시오, 오늘날, 의학이 이렇게 진보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는 암에 걸렸습니다.”하고 말합니다. 글썄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것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것은 의학적 이름으로 암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의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이름을 암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실제의 상태는, 그것을 쪼개 내려가 보면, 그것은 마귀입니다.

87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쪼개 보십시오.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죄의 속성들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죄가 시킨 것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죄는 불신(不信)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부르는 그것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도,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88 자, 뭔가 잃었고, 그것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Eng. p. 72)

89 여러분 누군가가 땅에서 떨어져 어딘가 깊은 수렁으로 빠졌고, 그가 몸부림치고, 기어오르고, 당기고할 것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이 수렁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원래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벽을 손으로 긁고 소리를 내거나 무슨 수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90 어떤 사람에게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엄습했을 때. 전에는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들은 건강치 않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했던 때로 돌아가고자 애쓰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91 성경에 이른대로, 자연과 사람들은 다같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땅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딘가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는 그들이 떨어진 출처는 영생이라는 것과 에덴 동산에서 영생으로부터 죽음으로 떨어진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잃었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연에도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92 아담 이전에는 결코 한 그루의 나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 이전에는 결코 한 마리의 동물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 없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생을 가져야만 합니다.

93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에다 우리의 장자권을 팔았고 이 틈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름의 이쪽 편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자, 물론, 아담이 죽음으로 타락했을 때,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94 그런데, 그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처럼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태초에, 그들 앞에 옹고 그름의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들 모두 각자 각자 앞에도 놓여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담이나 이브에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글쎄,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어요.”하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아담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옹고 그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95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속을 받으면 우리는 더이상 우리 자신의 선택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원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96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들 자신의 선택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조사했고, 그것은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Eng. p. 73)

97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속을 받게되면, 그는 더이상 학문에 대해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이상 세상 것들을, 세상 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어떤 선택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선택이 되어 왔고, 그것이 선택의 전부입니다. 그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이상 자신을 이끄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 어디로 가라든가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는 누군가도 원치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자기를 지으신이의 선택을 알아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나서 창조주가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창조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98 그러나 지혜를 찾는 사람은 알아 내기를 원합니다, “이쪽 교

구는 참 좋아. 그러나 저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했어, 그러니 저쪽으로 가야지.” 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지혜입니다.

99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지 않고 아내의 변론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죄를 지었을 때, 자, 그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사탄과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그 산물을 생산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지 않고 팔아 버렸습니다.

100 그는 교제와 영원한 생명에의 권리를 잃었을 때, 자기의 기업도 잃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그가 영원한 생명을 잃었을 때, 그는 영생 안에 있던 그의 기업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 대하여 전적으로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의 작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모든 곳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이 땅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말할 수도 있고,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자연 현상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가 그것을 했을 때, 자기의 기업을 잃었습니다.

101 자, 아담은, “여기 있는 이 산은 저기 저쪽으로 옮겨져라.” 하고 말할 수 있었고, 그 산은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아담은, “여기 있는 이 나무는 뽑혀져서 바로 여기에 심겨라”하고 말할 수 있었고, 그 나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가는 작은 신으로서 완전한, 최고의 지배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02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추고 본 설교로 들어가도 되겠죠? 오! 만약 그때 그 보혈이 다시 그것을 깨끗케 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인 둘째 아담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아시겠죠? 말씀하시길,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시겠죠?

103 아담은 그의 기업인 이 땅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의

손에서 그가 판 자 사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 사탄의 변론에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원한 생명과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와 그에게 속했던 땅에 대한 권리, 이 모든 것을 아담은 사탄의 손에 넘겨주고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손에 있던 그것을 사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것은 돌아갔고 더럽혀졌습니다. 아담의 씨(자손)는 아담이 가져야만 했던 기업, 즉 이 땅을 파괴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씨가.

104 며칠 전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루산에 들렸습니다. 저는 산 꼭대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300년 전에, 늪은 파파고가 트러보이를 타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뒤에 태우고 (Eng. p. 74) 저 아래로 내려와 어딘가로 가서 평화스럽게 살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때는 간음도 위스키도 도박도 그런 것은 그들 가운데는 없었어. 그들은 깨끗하게 살았고 코요테가 매일 밤 시냇가에 내려와서 여기 루산을 지나며 울부짖고, 메스키트와 선인장이 독 주위에서 꽃을 피우고, 여호와께서는 내려다 보시고 틀림없이 미소지으셨을거야. 그러나 백인이 그리로 와서 무슨 일을 했지? 백인은 그 선인장을 다 파냈고 맥주통과 위스키병으로 나라를 오염시켰고, 이 나라의 도덕을 망가뜨렸어. 그가 인디언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디언의 식량인 들소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어.”

105 며칠 전 틸스톤에 있는 박물관에서 읽었는데, 저는 저라니모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라니모는 배반자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가 진정한 미국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로지 옳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땅, 국가, 살 장소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싸웠을 뿐입니다. 저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백인 군인들이 거기로 들어와서 강제로 그 땅을 빼앗고 그들을 파리떼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라니모의 의료 본부 즉 그의 병원을 찍은 원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스키트 나무 위에 두세 개의 담요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상당한 진실한, 진짜 미국인들, 인디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라니모는 한 팔로 자기 얘기를 영명이 위에

안고, 거기에 서서 그의 동족 전사들이 피를 흘리며, 페니실린이나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으므로 도울 방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진짜 미국인들을! 그러한데, 그를 배반자라고 부릅니까? 저는 그를 신사라고 부르겠습니다.

106 코취츠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군대는, 거기서 온갖 무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들소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소뿔을 나가서, 샤프가 들소 잡는 소총을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말하기를, “오, 난 오늘 재미있게 보냈어.” 그들은 화물차 아니 객차에 앉아서 밖으로 사격을 해했습니다. 말하기를, “난 오늘 사십 마리를 죽였어.” 사십 마리의 들소라면 인디언 전 부족이 이태도 넘게 살 수 있는 식량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들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막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썩은 고기냄새가 진동을 했으며 온 땅에 악취가 풍겼고 코요테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107 인디언들이 들소를 죽이면, 그들은 종교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들은 남비를 만들기 위해서 들소의 발굽을 버리지않고 아껴 두었습니다. 고기는 그들이 먹고, 내장 위에 붙은 고기까지도 먹습니다. 그들은 고기는 모두 먹고, 나머지는 매달아서 말렸습니다. 가죽은 팔려 그것으로 옷과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버리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108 그러나 백인이 들어왔을 때, 배반자는 백인입니다. 백인이 악당입니다. 백인이 들어와서 들소들을 죽이고 인디언들을 굶어 죽게 했습니다.

109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리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 인디언들에게 행한 행위는 미국 국기에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인디언 것이었습니다. (Eng. p. 75)

110 만약 일본이나 다른...러시아가 들어와서, “여기서 나오시오! 이곳에서 꺼져버려”하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 인디언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한다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뿌렸고, 이제는 거둘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심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추수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은 참으로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11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더럽혀진 씨는 이 땅을 더럽혔고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담의 더럽혀진 씨가,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고 싶습니까? 봅시다. 저는 여기에 그것을 적어왔습니다. 요한 계시록 11장을 펴 보십시오, 함께 알아보시다. 계시록 11장,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 알아보겠습니다. 11장, 18절을 봅시다. 저는 11장 18절이라고 믿는데, 여기 있군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자, 하나님의 분노를 보십시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른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12 그들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심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거리에서 난무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일요일 밤에, 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간음이 저질러질까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여기 제퍼슨빌이라고 불리우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들의 결혼 서약을 켈까요? 여러분 생각에 한 달 후에 얼마나 많은 낙태 수술이 시카고에서 기록될까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도 매달 이만 오천에서 삼만 건 사이일 것입니다. 시카고 시에서 얼마나 많은 위스키가 소비될까요? 여러분은 하룻밤 동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퍼슨빌에서만 주님의 이름이 몇번이나 헛되이 일컬어졌겠습니까? 오늘날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조지 라저스 클락이 뱃목을 타고 내려올 때가 더 좋았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으로 이 땅을 완전히 오염시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3 저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세상을 보기를 좋아하는 뭔가가 제 안에 있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114 저는 인공 야자나무들을 세워 놓은 플로리다를 싫어합니다. 오, 세상에, 저는 걸치장과 할리우드에서 하는 그런 것들과 거기 있는 매혹과 주정뱅이들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악어가 꼬리를 뒤로 꼬고 있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오, 세상에, 저는 그저 “언젠가는! 언젠가는!”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15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Eng. p. 76)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위대하고 큰 뭔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단순한 사람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땅을 더럽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정확되고 난 후에는 온유한 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116 그런데, 오, 세상에! 자, 그 상실된 등기권리증은 지금 원 소유자인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땅과 영생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아담이 그것을 잃었을 때, 그때 사탄의 더러운 손은 그것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 소유자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알아보겠는데, 거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손에 그것을 들고, 등기권리증을 들고 계십니다. [브래넘형제가 손뼉을 두 번 친다--주] 오, 그것은 제가 종교적인 사람인 듯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로의 등기 권리증, 양도 경과 설명서(abstract), 영원한 생명에로의 등기권리증. 아담이 믿음 대신 지혜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잃었을 때, 그것은 원소유자의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117 좋습니다, 기다리면서. 그것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속에 대한 주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구속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돌아갈 길을 만들었고, 언젠가 구속자가 그것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속에 대한 주장을 기다리면서, 그것은 구속(속량)입니다.

118 이 구속의 책은 무엇입니까, 이 등기권리증, 양도 경과 설명서가 첨부된 등기권리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양도경과 설명서라고?”하고 말하실 겁니다. 양도경과 설명서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처음에로부터 다 거슬러서 조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작은 ... 처럼, 오늘 아침 그 작은 잉크방울처럼, 그것이 표백제에 닿으면, 그 잉크는 처음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고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떨어지면, 오, 세상에, 그 피는 “양도경과 설명서”를 주어, 곧장 다시금 창조주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양도경과 설명서가 첨부된 등기권리증은 전능하신 이의 손에 있습니다. 오, 세상에!

119 그것의 구속은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총괄적인 합법적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오, 세상에! [브래넬형제가 손뼉을 한 번 친다--주] 그것이 거둬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양도경과 설명서가 첨부된 등기권리증의 법적인 소유, 영생의 등기권리증은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 형제여, 무엇이 그렇다고요? 그 증서를 소유하는 것이 말입니다!

120 아담은 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안 후, 아담은 죄를 지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해서 갈라진 틈의 이쪽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자신도 구속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121 그러나 율법은 근족(친족) 구속자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근족 구속자를 요구했습니다. “근족 구속자”를 적고 싶으면, 레위기 25장에서 찾아 보십시오.

122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 주제를 설교하는데 매일 하룻밤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Eng. p. 77)

123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대속물을 받으셨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끝장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 이 근족 구속자라는 신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은 근족 구속자를 요구했는데 은혜가 그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오, 놀라운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하나님의 율법은 죄없는 대속물을 요구했습니다.

124 그런데 누가 죄가 없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성관계가 있은 후 성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두 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유일한 자가 영생에 대한 권리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권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125 오, 제가 이 성경구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고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구속해 주셨으니.” 오, 이런! 무엇이? 근족 구속자입니다! 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126 보십시오, 율법은 분실물을 무르기 위해서 근족 구속자를 요구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 이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족은 인류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127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해야만 했을 때. 거기에 성행위가 있었음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글썄, 그는 완전히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모든 인간은 여자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128 그런데 하나님은 근족 구속자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족 구속자는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려 하십니까? 율법은 근족 구속자를 요구했습니

다.

129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와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서로서로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한번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우리와 다른 존재이고, 다른 몸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다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근족 구속자를 요구했습니다.

130 그런데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은 성관계로 태어났습니다. 자, 알지 못하십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거기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뱀의 씨가 거기서 개입합니다. 아시겠죠?

131 자, 보십시오, 근족 구속자를 요구했습니다. 구속자, 근족 구속자는 인류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여기, 우리들을 위협한 위치에 놓는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겠습니다. 처녀 출산은 바로 그 산물을 낳았습니다. 아멘. 처녀 출산은 우리의 근족 구속자를 낳았습니다. 다름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하신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 “근족 구속자”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아시겠죠. 그러나 그때 은혜가 사이로 들어와 그 율법을 덮고 그 산물을 낳았습니다. 아멘! [브래넨형제가 손뼉을 한 번 친다--주] (Eng. p. 78)

132 오, 우리가 분향집에 이를 때! 제가 저 아래서 내 작은 오두막에 다다를 때, 네빌형제가 노래하던 집에 이를 때. 어느 날 아침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놀라운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나같은 죄인을 살린 그 말!”하고 노래부르는 소리를 여러분 모두가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늙은 브래넨형제도 왔군. 바로 저기에 있네.”하고 말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

내 마음에 경외심을 가르친 것은 은혜였고,

내 두려움을 없앤 것도 은혜였다네,
나 처음 믿은 은혜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133 잠시 후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오 세상에! 자 보십시오. 그 책은...

134 룯기는 이것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아스가... 그런데 나오미는 토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두 제가 그 내용을 설교한 것을 들으셨죠? 들으셨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그렇죠. 보아스는 구속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무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근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나오미를 구속하면서, 그는 룯을 얻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속하면서, 그리스도는 이방인 신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테이프에 녹음해 두었는데, 갖고 싶으시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135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것은 근족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사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어야 하지만 성행위로 여자에게서 태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녀 출산으로,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피는 어떤 성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피로 구원을 받은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피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 구원받았습니다.”

136 그래서,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세째 분이 아니었고, 네째 분도, 둘째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자기자신을 나타내시고. 저는 부쓰-클리번의 얘기, 그 훌륭한

고 아름다운 찬송을 좋아합니다.

영광 버리고 아래로, 언제나 살아있는 이야기,
내 하나님이자 구세주가 오셨네, 예수가 그 이름.
구유에서 나신 분, 백성들에게 나그네로,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짊어진 사람. 오!

겸손하셔라, 우리 구속하려,
희미한 희망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한 밤중에,
소중하고 부드러운 하나님께서, 그의 광채를 버리고,
날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구하시려 몸을 굽히셨네. (Eng. p. 79)

오, 얼마나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를 찬미하는지!
나의 호흡, 나의 태양, 나의 모든 것!
위대한 구속자가 내 구주 되셨네.
위대한 창조자가, 내 구주 되셨네.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시네.

137 바로 그분이 그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책이...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막을 펼치셨고, 하나님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바꾸사 전능하신 이로부터 인간의 형태를 입고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분을 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시겠죠? 좋습니다.

138 성경에서, 룻기에서, 여러분이 룻기를 읽어가다보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고엘”(G-O-E-L)이라 불리웠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엘은 불려졌는데, 아니, 그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엘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기꺼이 그 일을 해야하며, 그 일을 하는 자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니까 근족이어야 합니다.

139 그래서 영의 창조주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족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속자가 계십니다.

140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의 소유물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과는 생각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시겠죠. 우리는 알게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만약 그가 구속의 책을 취했다면, 아담이 가졌던 모든 것과 잃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되찾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들을 구속했지만 아직 소유물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다시금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그는 그의 소유물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할 때 가졌던 소유물을. 그러나 정해진 때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141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책 속에 적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속의 책, 그것은 모두가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하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번 주에 일곱 인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것은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인들이 떼어지고 풀릴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행해질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여기 이 비밀의 책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봉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으로 인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인들을 떼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142 자... [뭔가가 브래넌형제를 중단하게 한다--주] 미안합니다. 우리는 깨닫는데...

143 여러분이 성경구절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예레미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ng. p. 80) 그는 숙부의 ...을 샀습

니다. 그의 숙부의 아들은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인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역시 그것을 일곱 교회 시대에서, 인들과 기타 여러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144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인은 이와 같이 둘둘 마는 것이었습니다. [브래넘형제가 둘둘 마는 것, 인침, 두루마리의 개봉을 설명하려고 여러 장의 종이를 사용한다--주]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비밀은 주위가 인봉되고 이런이런 권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번 비밀은 이 유업이 있는 주변에 둘둘 말려 있었으며, 여기에는 이런 이런 권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그것은 결국 두루마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는 이와 같은 책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아진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몇분이나 아시겠습니까?) 두루마리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인봉된 두루마리 하나를, 여러분이 여기에서 인을 하나 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떼어서 여러분은 그 주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인을 떼면 또 다른 주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45 그런데 여기 있는 전부는 일곱 개의 인인데, 창세 이후로부터의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 안에 모두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일곱 개의 인으로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인들을 잡아당겨 이 책을 살피가면서 그것이 다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시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속의 비밀이 ... 때까지 인봉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 천사의 메시지가 있기 전에는 떼어질 수 없었습니다.

146 두루마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구속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구속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증서는 ...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는 말할 것입니다. 그는 토기에 담아 보존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잠시동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토기 안에 보관

되었습니다, 한 때 육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질그릇 속에서 획득의 때까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147 이제, 이 메시지들은 모두 이 토기가, 땅에 있는 마지막 사자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판단하면서, “나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걸 압니다. 저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하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그것을 나타내고, 여러가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입증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48 그런데, 이제 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제 2절로 갑시다. 한 절을 가지고 시간을 참 오래 끌었군요. 이제 2절을 봅시다. 이제, 다음 절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하니(Eng. p. 81)

149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연결시키기 위해서 1절을 다시 읽으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150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누구니까? 절대적으로 생명책을 원래 가지고 계시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아담이 상실했을 때, 그 책은 원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환상가운데서) 요한은 보았습니다...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151 보십시오, 안에! 그런데, 우리가 이 일곱 인들을 뽀텐데, 여

러분은 그것이 곧장 성경으로 다시 쪽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인은, 전부 다, 모든 비밀은, 이 인들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비밀은 이 인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브래넌형제가 설교단을 다섯번 두드린다--주] 그런데 그 인들은 그 때까지는 떼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기서 잠시 후에 증명하겠습니다.

152 보십시오. 이제, 그 책은 인봉된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싸여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이. 또 다른 것이 그 위에 싸여 있습니다, 인 하나. 그것은 구속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합쳐져서 그 책을 만듭니다, 그 책은 일곱 개의 인으로 인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들이 뒷면에 있는 이유는 그것은 들들 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인의 비밀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은 단지 “흰 말 탄 자”라거나, “검은 말 탄 자”라거나 그렇게, 바깥에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책 전체의 비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비밀은, 그 인들 속에 있습니다. 구속의 완전한 계획은 이 일곱 개의 인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153 자, “그런데 힘센 천사가...” 자, 2절에서.

...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합당하냐...
(무엇을 하기에 합당합니까?) 그 책을 취하기에 누가 합당하냐...

154 그런데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금 그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의 원 주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인류가운데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 한 아들에 의해서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리들을 버렸을 때, 그는 ... 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신에 사탄의 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출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말씀에 대한 신학교의 사상을 취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담과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권리를 버렸습니다. 그

래서 그가 버렸을 때, 그것은 곧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들이 어디에 있어왔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곧장 원래 가지고 계시던 분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Eng. p. 82)

155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요한은, 여기 위에 하늘에 서서. 그는 교회 시대가 끝난 후, 이제 막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는 교회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들려올려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되, “더 높이 올라오라.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 주마.”

156 그래서 그는 손에, 오른 손에 이 책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책 안에 구속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곱 개의 인으로 인쳐져 있었습니다.

157 바로 그 때, 한 천사가 나와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고,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인들을 펼 수 있느냐? 누가 이 책을 펼 수 있느냐?”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사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하기를, “자, 누가 합당하냐? 그로 하여금...”했습니다. 오, 세상에! 아마 저는 그것은 이런 식이었으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이라고 천사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구속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구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늘과 땅 전체의 구속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이런, 세상에! “지금 얘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침묵하라. 그 사람은 나와서 이 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 보라. 누가 그렇게 하기에 합당한 자냐?”

158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하늘에도 합당한 사람이 없었고, 땅 위에서도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없었고, 땅 아래에서도 살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합당하지 않았다

159 그 천사의 외침은 근족 구속자는 나오라는 부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법이 하나 있는데 근족 구속자가 대속물이 될 수 있다. 그 근족 구속자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가?”

160 그런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을 거쳐서 쪽 아래로, 선지자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데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아무도, 땅에 있는 아무도, 살았던 자 아무도.” 엘리야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 곳에서 있었습니다--죽은 이들 모두, 모든 거룩한 이들과 율과 현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두 거기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 책을 취해서 인들을 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책을 보기도 합당치 않았습니다.

161 자, 교황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주교가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162 천사가 근족 구속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무도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Eng. p. 83)

163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천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라면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족이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여기에서, “어떤 자(者)”라고 했지 천사나 스랍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타락한 적도 없습니다.

164 그러나 이 사람은 근족 구속자여야 했습니다. “아무도,”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보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오, 아무도!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인간인 근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었지만, 아무데도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교도, 대주교도, 목사도, 어떤 성직자도 아무 것도 심지어... 그 책을 볼 수 있을만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휴우! 세상에, 세상에! 그것은 아주 강력한 말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한이 한 말을 인용할 따름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165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은 자기가 합당한 자로 여겨지지 않았으므로 울었다.”하고 말하더군요. 오! 성령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166 그러나, 요한은 “울었습니다.” 요한이 울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합당치 않고, 이 구속의 책을 펼 수 없었다면, 온 피조물은 구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167 여기에 그 책이, 여기에 등기권리증이 있고, 그것은 자격을 갖춘 근족구속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법이며, 하나님은 그의 법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아니 그의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합당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자질을 가진 근족 구속자를 요구했습니다.

168 그래서 천사가, “자 그 근족 구속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169 그래서 요한은 보았습니다. 요한은 온 땅 위를 보았습니다. 땅 아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조물과 모든 것은 구원을 잃었습니다. 물론, 요한은 모든 것이 구원을 잃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170 그러나 그의 울음은 몇 분 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때 거기에 서 있던 장로들 중 하나가, “요한아,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니다. 오, 세상에! 그의 울음은 단 몇분 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171 요한은 생각하기를, “오, 이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지? 저기에 나처럼 태어난 선지자들이 서 있네. 저기에는 현인들이 서 있네. 저기에는 ...가 서 있네. 오, 여기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172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나는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173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모든 것이 구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이, 그들이 누군가를 찾지 못한다면,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는--그는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만약 그들이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모든 인간들과 온 세상과 피조물들이 끝장이었습니다. (Eng. p. 84) 오, 모든 것이 타락했었습니다. 구속의 권리들, 영원한 생명의 권리들, 빛, 이런 모든 권리들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었고, 아무도 그 책을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오, 한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요한은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구원을 잃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174 그런데, 네 짐승 가운데와 하늘의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서 있는 장로들 중 하나로부터 한 음성이 나와, “요한아, 울지 말라”했습니다. 오, 이런!

175 [브래넨형제가 손뼉을 두 번 친다--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6 “요한아, 상심하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인 그가 이기었으니 울지 말라.”

177 이기었다는 뜻은 “힘을 겨뤄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오 세상에! 겿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얼굴에서 똑똑 떨어

어졌을 때, 그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휴우! 아시겠죠?

178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79 속여서 대신하는 자인 야곱처럼. 그런데 그가 천사와 만났을 때, 그는 계속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당기며 가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저는--저는 결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의 대신하는 자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룬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180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습니다. 그는 말하길, “요한아,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그는 이미 이겼다. 그가 그 일을 해냈다. 일은 끝났다, 요한아.”했습니다. 휴우! 오, 오, 이런! 그는 지혜로 인류를 더럽힌 그 기름묻은 손에 죄를 돌려보내는 표백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81 그러나 요한이 보려고 몸을 돌렸을 때, 그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사자와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는, “사자가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제가 거기서 그것을 인용한다면, 단순함 속에 감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는 사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사자가 이겼습니다.” 동물들 중 가장 강한 동물은 사자입니다.

182 저는 아프리카 정글 속에 누워서 기린이 우는 소리와 커다랗고 거대한 코끼리가 코를 공중에 올리고, “위이, 위이, 위이,”하는 소리와 사막의 야생동물들이 핏발선 딱딱한 소리를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정벌레가... 그런데 빌리 폴과 저는 가시로 뒤덮인 조그만 낚은 곳 안에 누워서 저 멀리서 사자가 으르렁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입을 다뭍니다. 딱정벌레조차도 소리지르던 것을 멈춥니다. 왕이 말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오, 오, 오, 세상에!(Eng. p. 85)

183 바로 그겁니다. 그 때는 교파들과 의심들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왕이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것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

184 그는 말했습니다, “요한아, 걱정하지 말라. 울지 말라. 요한아, 상심하지 말라. 나는 환상가운데서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네게 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네가, 아무 것도 구속받지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이 구원을 잃을 것이고, 아무도 그 요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갈기 갈기 찢어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사자가...”

185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다는... 우리는 그것을 칠판에 그려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였습니다.

186 기억하고 계시죠, 사자와 소와... 기타등등, 사람의 머리와 기타등등, 그리고 그 스랍천사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고,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요한복음이 모두 사도행전 주위를 둘러 서 있는 것처럼.

187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목사가, “사도행전은 비계 공사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88 사도행전은 거룩한 교회가 낸 첫 포도나무였습니다. 아-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다른 가지를 낸다면, 그 가지도 똑같은 종류의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접붙힌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을 맺고 있는 가지들도 있는데, 그것은 오렌지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그 포도나무가 또다시 가지를 낸다면, 그것은 처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89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거기에 서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사자의 힘과 소의 노동과 표범의... 아니 독수리의 민첩성. 그렇습니다. 그 복음들은 거기에서 있습니다! 뭐라구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일곱 교회 시대를 배울 때였습니

다.

자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하고 말했습니다.

190 왜 그렇습니까? 유다로부터? “오 유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치리자가 그 밭 앞이나 사이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191 “그리고 유다 지파의 상징인 사자가 이겼습니다. 그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2 그런데 요한이 그 사자가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둘러보았을 때, 그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사자를 찾다가 어린 양을 봅니다. 그 장로는 그분을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았을 때, 그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죽임당한 어린 양.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린 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피투성이에, 상처투성이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투성이였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도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Eng. p. 86)

193 어린 양이 올라섰습니다. 장로는, “사자가 이기었다. 유다지파의 사자가.”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자를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떨어져 피투성이되고 상처투성이가 된 어린 양이 왔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그가 싸움터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194 요한은, 아시다시피, 전에는,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전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 데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을 두루 쳐다볼 때, 그 어린 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여기로 나왔습니다.

195 그 양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십시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일으켜진 이후로 그가 앉혀져 있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항상 증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살아나셔서, 오늘도,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 증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증보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백제로 덮여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표백제로.

196 요한은 그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은 그가 상처를 입고, 잘리고, 명들고,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 흘리는 어린 양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어린 양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야만 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197 요한은 그 어린 양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유는 어린 양이 저 영원 속에 계셨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증보자 역할을 하고, 대속의 제물인 소와 염소의 피를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했던 사람들, 그는 역시... 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 자기를 향해 가리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혈은 아직은 흘러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는 여러분들과 저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198 그리고, 오 하나님, 저는 그분이 오늘밤 거기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인을 위하여,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거기에 서 있는 그 피투성이된 어린 양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199 그런데 지금 그 어린 양이 환상 속으로 나왔습니다, 죽임을 당했던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보좌에서 나왔음을 보십시오. 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서 이 환상으로 나왔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던 곳인 영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영광으로부터 요한에게 나아오셨습니다.

200 오, 오늘 밤, 우리의 죄많은 생각들을 모두 다 버리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밤, 영광으로부터 그 길을 쪽 걸어오신다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 어린 양이 증보하기 위해 영광으로부터 나아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의 구속물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린 양은 여기 뒤에서 증보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인들은 열릴 찰나에 있었는데,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고, 앞으로 나아왔음을 명심하십시오. (Eng. p. 87)

202 우리가 한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반 시간”은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연기로 자욱합니다. 더이상 증보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은 떠났습니다. 이제 그 곳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곳에는 더이상 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혈로 덮인 어린 양이 걸어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구약에서 어떠한지 기억하십니까? 피가 속죄소(자비의 자리)에서 없어지면,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자비가 있었습니다. [브레넌형제가 강대상을 다섯 번 두드린다--주] 그러나 어린 양이 걸어 나가 버렸을 때, 일은 끝났습니다!

203 어린 양은 그 동안 무엇이었습니다? 그는 증보자였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 마리아가 어디에서 증보를 할 수 있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마리아가 무엇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성 프란시스, 성 아씨씨나 성 쉐실리, 다른 어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은 증보소에서 수천 명의 성자들이 나오는 것을 결코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었고, 피흘리는 어린 양을.” 저는 얼마나 많은 성자들이 죽임을 당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마땅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강도가, “우리는 죄를 지어 이 일을 마땅히 당하나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도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가 유일하게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204 여기 그가 증보소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가 왜 나오니까? 그

를 지켜 보십시오! 오, 오, 오, 이런, 세상에! [브레넘형제가 손뼉을 세 번 친다--주]

205 요한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6 장로는, “요한아, 울지말라.” 했습니다. “여기 사자가 온다. 그가 이긴 자였다.” 요한이 쳐다보았을 때, 죽임을 당했었던 피 흘리는 어린 양이 왔습니다.

207 어떤 것이든 죽임을 당하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죽임을 당하면. 목이 잘라져 열리고, 피는 온 전신에 묻게 됩니다.

208 여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왔습니다, 이런, 세상에! (무엇때문에?) 자기의 구속함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 오! 저는... 여러분 저 모퉁이로 가서 앉아서 잠시동안 좀 울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여전히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이 나왔습니다. 요한은... 거기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유명인사들이 거기에 둘러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이 이제 나옵니다. 그의 증보 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중재의 날들은.

209 그 때 이 천사가 처음으로 거기에 서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들을 배우게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그 반 시간.” 그 반 시간동안의 침묵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의 뜻이라면, 다음 주 일요일 밤, 일곱째 인이 ...때, 지켜보십시오.

210 그가 나옵니다(무엇때문에?) 이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오, 세상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옵니다! 자, 그는 근족의 일을 했습니다. 내려와서 인간이 되고 죽었습니다.(Eng. p. 88) 구속하는 근족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의 권리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권리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십시오,) 오, 이런, 죽임을 당하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인간의 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그는 “사자다.”라고 한 말은 맞았습니다, 그렇죠. 장로는 그분을, “사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옛날에는 어린 양이었지만, 증보자인 피투성이 어린 양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증보시절은 끝났습니다.

211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있게 하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있게 하라.” 그 일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 형제여!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212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열리게 될 일곱째 교회 시대에 오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는 믿는 자를 위해서 증보를 하시며 증재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천 년 동안, 그는 저 뒤에서 어린 양으로 계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 등기권리증인 책을 취하고, 인들을 떼고, 비밀들을 나타내시려고, 영원으로부터 앞으로 나아오시고 계십니다. 그 일이 언제 있다가요? 마지막 때입니다.

213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나가겠습니다.

214 그런데, 인을 떼고 모든 비밀을 그들에게 풀어주어, 일곱째 천사에게, 그의 메시지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은 이 일곱 개의 인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가 여기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비밀들은 이 일곱 인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215 그런데 어린 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증보자됨에서 나옵니다. 그는 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가 될 때, 그는 그 책을 취합니다. 그 책은 그의 권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비밀을 쥐고 계셨는데, 이제는 어린 양이 옵니다.

216 아무도 그 책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황도, 목사도, 누구든지간에, 그 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일곱 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217 그러나 증보자로서의 그의 일이 끝이 났을 때, 그는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장로는, “그는 사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옵니다. 그를 지켜보십시오. 이런, 세상에! 아시겠죠? 그는 그 책을 취하려고 나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는 이 모든 교파 시대에 사람들이 추측해오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나타내려고 나옵니다.

218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일곱째 천사는. 만약 이 책, 비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곱째 천사는 선지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교황도, 다른 누구도 그 말씀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에게만 옵니다, 항상. 말라기 4장에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오면, 그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취하고, 모든 교회 시대동안 교회는 온통 뒤죽박죽해 놓았는데, (Eng. p. 89) “자녀들의 믿음을 아버지들에게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심판이 일어나고 이 땅은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인들이 천년 왕국 동안 악인의 재 위를 밟고 다닐 것입니다.

219 이제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 --주] 좋습니다.

220 교파 시대에 사람들은 추측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죠, 그는 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0:1-4의 일곱째 천사는...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에게 주어졌고 교파 시대들을 통해서 빠뜨리고 있었던 모든 비밀들을 끝마칠 것입니다.

221 이제, 여러분은 제가 교파 속에 있는 형제들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비난하는 것은 교파라는 체제입니다! 그들은 ...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시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상하고,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믿었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은 분명히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 이런, 얼마나 훌륭한 성서입니까!

222 자,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면류관을 씌우러 왔을 때, 왕의 위치를 취한 분은 바로 그분 어린 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23 아시겠죠, “시간은 다 흘러갔습니다.” 계시록 10:6, “더 이상 시간이 없더라.”

224 보십시오, 이 어린 양에게는 “일곱 뿔”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셨습니까? “일곱 뿔이 있으니.” 우리는 방금 그것을 읽었습니다. 뿔은 동물에게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 책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

225 저는 이것을 어딘가에다 적어왔다고 믿는데, 오, 인들을 때고, 등기권리증을 풀고, 마지막 천사에게 메시지로 주려고. 그는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나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켜보십시오, 그가 나왔을 때, “일곱 뿔”은.

226 자, 요한이 이 어린 양을 보았을 때,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피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영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보자의 일을 마쳤습니다.

227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많이 마리아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나 땅에나 어디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책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실때문에 울기까지 했습니다. 오, 카톨릭 친구들, 그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228 어린 양이 유일한 증보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린 양이 앞으로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할 때까지 저기 뒤에서 중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은 그 책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압니다. (Eng. p. 90) 그래서, 그는 그들의 이름이 그 안에 적혀 있음을 창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뒤에 서서... 증보자 일을 끝내고, 그 책에 적혀 있던 모든 이들이 구속함을 받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증보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근족의 일을 끝냈습니다. 그는 모든... 여러분은 근족의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일은 장로들 앞에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아스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제 이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229 자, 그는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 옵니다. 아멘. 그는 이제 왕으로서 옵니다. 그는 자기의 여왕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책 안에는, 일곱 인으로 싸여져, 그 일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 형제여! 일곱 인들, 그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보십시오.

230 이 상징들을 알아보시다. 지금은 9시밖에 안됐습니다. 이제 세 시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남았는데 그냥... 사탄은 저에게 여러분들이 피곤할 거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봅시다.

231 “일곱 뿔”은 일곱 교회였습니다. 아시겠죠, 일곱 교회 시대,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자기 권리들을 지켰습니까, 보호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어린 양에게 있는 뿔을.

232 “일곱 눈”은 일곱 교회 시대의 일곱 사자들입니다. “일곱 눈,” 일곱 선견자.

233 성경 몇 구절을 좀 적으시겠습니까? 그냥 거기를 펴봅시다. 그러시겠습니까, 그 정도의 시간은 있습니까? [회중이 “아멘”한

다--주] 좋습니다. 스가랴로, 잠깐동안, 스가랴서로 갑시다. 우리는 여기서 몇구절 읽겠습니다.

234 저는--저는 이 성서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을 오래 붙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그런데 저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뜻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네. 뭐가 더... [회중가운데 누군가가, “브래넘형제님?”한다] 뭐라고요? [“그걸 짚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235 이제 스가랴 3장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성서구절들을 적어왔다면, 여기서 이 상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했을 때 오늘 오후 아무데나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구절을 올바르게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올바르게 적어왔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3장, 어디 봅시다... 저는 여기에 89라고 적어왔는데, 그것은 8절로 9절임에 틀림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것이 89절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스가랴 3장 8절과 9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가지를(그리스도입니다) 나게 하리라(Eng. p. 91)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236 자, 스가랴 4:10, 4장 10절을 펴 봅시다. 들으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단순함 속에 계신 하나님, 아시겠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톱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237 “일곱 눈”. 눈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는 것은 “선지자 즉 선견자”를 의미합니다. 이 어린 양은 일곱 뿔이 있었는데, 뿔마다 눈이 하나씩 달려 있어,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입니다. 일곱 교회 시대. 거기에서 일곱 선지자, 일곱 선견자, 일곱 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자는 선견자이어야만 합니다. [브래넘형제가 “선견자”라고 말하면서 강대상을 두번 두드린다--주] 좋습니다.

238 보십시오, 그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보좌에 앉아가신 이의 오른 손에서 그 책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습니까? 오른 손에, 구속의 책을 가진 원 주인입니다. 어떤 천사나 천사적 존재나,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투성이인 어린 양은 걸어나와서 그의 손에서 그 책을 취했습니다.” 휴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여,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일입니다. 아멘. 어떤 천사도, 어떤 것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나와서 그것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취했습니다.”

239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책은 어린 양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근족 구속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것을 쥐고 나왔습니다. “내가 그들의 근족입니다! 내가 그들의 구속자입니다. 저는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해서 증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들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러 왔습니다.” 아멘. 바로 그가 유일한 분입니다. “저는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러 왔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타락으로 잃었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 값을 치렀습니다.”

240 오, 형제여! 휴우!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맘 속으로 경건함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우리가 행한 선행으로가 아니라, 그의 자비로입니다.”

241 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그 장로들과 모든 다른 것들은 면류관을 집어던지고, 그 귀빈들도 땅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Eng. p. 92)

242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까지 걸어 가서 그의 손에서 책을 취하고, 자기의 권리들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근족 구속자입니다. 저는 중보자입니다. 저는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었었고 그 참교회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창세 전에 미리 보았던 자를 되돌리기 위해서. 저는 뜻을 정했었고, 거기에 그 일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족입니다. 저는 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취합니다. 아멘!

243 오, 오늘 밤 거기에서 누가 절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여,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어느 누가 거기에서 여러분을 기다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 근족 구속자입니다! 오, 이런! 얼마나 장엄한 말이며 행동입니까!

244 그런데, 그는 구속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손에 갖고 있습니다. 중보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왔지만, 이제는 어린 양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의 구속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다시 주장하러 나왔습니다. 천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인간에게 주워졌었던 그것을 인간에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덴동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들이 잃었던 모든 것, 즉 모든 피조물, 나무, 동물계, 그 밖에 모든 것을. 오, 이런!

245 여러분 그것이 기분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휴우! [회중이 “아멘”한다--주] 저는 아까 피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끔 저는 제가 너무나 늙어서 설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다시금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아. 흠!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안겨줍니다, 그렇죠?

246 왜냐하면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기에 서 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치를 수 없었던 값을 지불해 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 일을 질 위해서 하셨습니다, 찰리. 그는 그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는 그 일을 온 인류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의 구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주장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우리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 이런! 그는 내 형제입니다. 그는 내 구주입니다. 그는 내 하나님입니다. 그는 내 근족 구속자입니다. 그는 내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이 제가 무엇이였겠으며 그분 없이 제가 무엇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우리의 친족으로서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시간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나와서 그가 우리들을 위해서 행한 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구속의 책을 취하십니다.

247 그들은 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거니와,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248 그가 일경에 잠이 들었든지, 이경, 삼경, 사경, 오경, 육경, 칠경, 언제 잠이 들었든지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그 마지막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인이 열리는 똑같은 시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Eng. p. 93)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자가 그의 구속한 소유물인 그의 참교회, 피로 씻긴 참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249 자, 오, 이제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속의 모든 계획은, 그가 취한 이 책에 있는 신비스러운 일곱 인들로 봉해져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런데 오직 그분만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계시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는 그 일이

그 때에 일어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구속의 책은 신비의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제...

250 친구들, 여러분을 8:30에 보내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온 서너 장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데... 시간은 벌써 아홉 시가 넘었고, 여러분이 내일 다시 오실 수 있도록.

251 그러나 지금, 어린 양이 취한 구속의 일곱 인봉된 책 안에서, 그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좌에 앉아계신 이의 오른 손에서 취하셨습니다, 이제, 자기의 구속물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속했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구속하여 그것에게로 돌렸습니다.

252 자 어린 양이, 손에 책을 들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여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가 아주 조금만 시간의 장막을 찢히고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보십시오, 그가 그 책을, 인봉된 등기권리증을 취하여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그 비밀의 인들을 떼셨습니다. 그것들을 자기가, 아시겠죠, 구속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고 보여 주시려고.

253 그런데, 우리가 인들에서 이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 제단아래 있는 그 영혼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 이까, 얼마동안 있다가 하시렵니까?”하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54 그런데 여기에 제단 위에서 그가 증보자로서 계시면서, “잠시동안 기다려라. 너희와 같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자들이 더 있다.”고 하십니다.

255 그러나 지금 그는 이 마지막 인 때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더 이상 증보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왕이라면, 그는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가 구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구속의 권리를 취하기 전에는 그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보자로 있다가 그는 죽음이 우리를 무덤 속에 넣었던 곳에서, 그는 그 권리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멘.

256 “그런데 그가 오실 때 살아 남아 있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을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팔은 그 마지막 나팔 때 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 일곱째 천사가 그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Eng. p. 94)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들리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주장하십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소유물을 주장하러 나왔습니다.

257 보십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세상에! 인들을 떼고, 비밀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들을 (어디에?) 나타냅니까? 유일하게 살아 있는 자들인, 마지막 교회 시대에게 나타냅니다. 그 나머지는 잠자고 있습니다.

258 그는 말씀하시길, “만약 그가 일경에, 이경, 삼경, 저 나중 칠경에 온다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칠 경에, 호령 또는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 오도다!”

259 그리고 그 소리가 났을 때, 잠자던 처녀들 즉 이름 뿐인 교회들은, “오, 있잖아요. 저는--저는 성령을 갖기 원합니다.”했습니다. 장로교인들과 성공회교인들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피닉스에서 거기 올라온 사람에게 전한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라는 잡지와 거기에서, 말하길... 음, 이 작가가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누구 누구 성부님’하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아시겠죠, 그들은 저들과 함께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와서, “그래요, 우리는 믿어요.”하고 말하면서.

260 한 여자가 다른 여자분에게 막 전화를 걸어서, “있잖아요, 나는 성공회에 나가요. 난-난-난 며칠전 방언을 했어요. 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아주 많은 의심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불을 당겨 보십시오. 어떻게 그가 조용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261 여러분 다락방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오,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게 나올거야.”하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여, 창문으로 문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은 거리로, 슬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입니다.

262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잠자는 처녀는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들이 기름을 사려고 나간 사이에, 성경은 그들이 기름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음을 명심하십시오.

263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에,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고 있던 처녀들은 다 일어나 그들의 등을 청소하고 “혼인만찬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회중이 “아멘”한다--주]

264 그리고 나머지 다섯은 환란기 동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울며 소리치며 이를 갈면서.” 그것은 교회입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265 신부는 만찬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와 신부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아. “혼인만찬에 들어갔습니다.” 오, 보십시오, 이야! [브래넘 형제가 손뼉을 한 번 친다--주] (Eng. p. 95)

266 일곱 인은 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 진리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은 일곱 인을 떼었고, 그의 왕국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

려고 그의 참교회에게 인들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신부입니다, 아시겠죠! 오, 이런! 그는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그에게 모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67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땅의 티끌 속에서, 바다 속 바닥에서, 구렁 속에서, 온갖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어둠의 지역에서, 낙원에서,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회중이 “아멘”한다] 그는 부를 것이고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268 그는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는 자기의 비밀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시간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시간은 다 흘러갔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269 그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증보자에서, 사자,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메시지를 거절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를 떠납니다. 그는 이제 증보자가 아닙니다.

270 이제 구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르겠습니다. 피가 속죄소(자비의 자리)에서 떠나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271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버지의 보좌에서, 영원으로부터 일어나와서, 그의 권리를 취하면, 그것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되면 그는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이며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왕에게 자기 옆에 와 서라고 할 것입니다.

272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니엘은 “심판이 시작되고 책들이 열리고 수만만이 그에게 수종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왕과 여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책이 열렸습니다. 그 책은 생명책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왕과 왕이 서 있었습니다.

273 소 모는 목동의 명상시(詩)에서 읊고 있듯이:

어젯밤 나 초장에 누워 있을 때,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응시하고 있었네,
그런데 머지않아 목동이 그 화려한 곳으로
떠내려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네.

그 밝고 행복한 곳으로 가는 길 하나 있지,
그러나 그 길은 어두운 오솔길이라고들 말하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은
어디에나 안내판이 있고 환하다하네.

그들은 위대한 주인에 대해서 말하네,

274 그는 그의 소물이 생활에서 쓰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물이를 해 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ng. p. 96)

그들은 위대한 주인에 대해서 말하네,
그런데 그는 결코 넘치게 채우지 않는다하네,
그는 늘 죄인 한 사람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시네,
그 죄인은 그 험착한 좁은 길로 흘러갈 것이네.

그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들 말하네,
그는 모든 행동과 표정을 아신다하네,
안전하려면, 우리는 상표를 받는게 좋을 것이네,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위대한 책에 기록되도록.

대(大)소물이가 있을 것이라고들 말하기 때문에,
카우보이들은 어미 잃은 송아지처럼 서서,
판정하는 말탄 사람들의 표시를 받으려하네,
(그들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입니다)
그들은 능통하여 모든 상표를 아는 사람들이네.

275 여러분들이 소물이를 해 보신 적이 있다면, 거기에 서 있는
최고 책임자와 소떼 가운데서 빙빙돌고 있는 말탄 카우보이들을
아실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상표가 찍힌 소가 지나가면, 책
임자에게 몸짓으로 알릴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자는 그 몸짓을

알아채고,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그의 작은 말은 주위에서, 주위에서 빙빙돌고 있다가 그렇게 뿔들을 자르면서, 자기자신의 소들을 골라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대(大) 소목이가 있을 거라고 하네,
 카우보이들은 어미 잃은 송아지처럼 서서,
 판정하는 말탄 사람들의 표시를 받으려 하네,
 그들은 능통하여 모든 상표를 아는 사람들이네. (아시겠습니까?)

276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나는 길 잃은 한 살된 가축이 될거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상표가 찍히지 않은,
 (그것들은 국거리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고집센 녀석들과 함께 분리될 것이네,
 말탄 자들의 책임자가 지나갈 때에.

277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말탄 자들의 책임자입니다. 그분은 능통하여 모든 상표를 알고 있는 일곱 사자들의 어린 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흠!

278 보십시오, 여기에 그분이 오십니다. 증보자로서, 즉임당한 어린 양으로 있다가, 사자, 왕이 되기 위해서, 그를 거절했던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를 떠납니다. 우리의 근족 구속자가 그때에는 모든 것의 왕이 됩니다. 왜죠? 그는 구속의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게 그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알고 있어서 기쁩니다. 그렇죠?

279 그다음엔, 자기의 기업인 참 교회 즉 신부를 주장합니다. 그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280 그때에는 그가 어떻게 하시죠? 그의 대적인 사탄을 없앱니다. 사탄은 구속의 말씀을 거절하라고 사탄에게 조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탄을 불못에 던집니다.

281 그는 이제는 왕이십니다. 자비는 여전히 보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제안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말탄 자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Eng. p. 97)

282 이제, 이천 년 동안 그분을 괴롭혔던 그분의 대적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을 조종할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그들은 옛날에 그 동기권 리증을 잃어버렸다.”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283 그러나 그분은 근족 구속자이십니다. 그는 저기에서 증보를 해 오고 계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엔가는...

사탄은, “나는 그들을 무덤 속에 넣겠다.”하고 말합니다.

284 그러나 그분은 참 교회에게, “나는 너희를 끌어내겠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선, 나는 증보자가 되어야 한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85 자, 그는 저 영원으로부터 밖으로 나오십니다. 증보자로서 앉아있던 아버지의 보좌에서 나오십니다. 이제 그는 왕이 되시려고 오십니다, 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려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 형제여, 우리의 근족 구속자께서 그것 모두를 쥐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286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그 대적 사탄의 손에서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내 것이다. 나는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들과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과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다 사탄과 함께 모두 불못에 던져 멸망시키십니다.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그들을 불못에 던지십니다. 오, 이런!

287 여러분 아십니까? 끝내기 전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우리는--우리는--우리는 서두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7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던 모든 것이...

288 자 이것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그 책에서 읽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7절까지 봤습니다. 6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머리... (아니)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우리는 그것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289 보십시오, 일곱 교회 시대입니다, 그 불이 계속 타게 했던 일곱 사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290 이제 잘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하셨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십시오. 희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그 일곱 인이 떼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뒤에는 "반 시간 동안의 침묵"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Eng. p. 98) 이것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주 일요일 밤까지, 바로 여기에서, 끝낼 것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해 보십시오. [회중이 "아멘"한다 --주] 그가 이 일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잘 들으십시오.

291 모든 피조물은 다 탄식하고 있었고, 아무도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요한은 울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원 주인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여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어떤 인간도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책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도 교황도 하질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아무도. "그런데 어린 양이 나왔습니다!" 마리아도 못하고 이 성인, 저 성인도 못했습니다. "피흘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와

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이 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런데 제단 아래 있었던 모든 영혼들은, 천사들과 장로들과 모든 것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일이 행해졌을 때.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밤 그분은 증보자이지만, 그는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292 그들은 여기에서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제단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구속을 위해서 기도했고, 부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로들은 기도들을 ...앞에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하늘에 계신 근족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들을(보십시오) 피로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93 그들은 돌아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294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방언이라도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295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296 얼마나 희년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지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이 나와 구속의 책을 취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영혼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장로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쏟았습니다. (Eng. p. 99)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합당하시니이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이 천사들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휴우!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297 어린 양이 그의 권리를 주장하러 여기로 나오기 위해서 그 중재석을 떠났을 때, 하늘에서는 얼마나 큰 희년의 기쁨이 넘쳐났습니까!

298 여러분은 다음에 요한도 그런 기쁨을 가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분명 그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일곱 인들이 떼어졌을 때, 그는 정말로 벅찬 기쁨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요한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늘 위와와 땅 위와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는 말을 들으매...(아멘! 아멘! 아멘! 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이십 사 장로들은 영원히 사시는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더라

299 희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어린 양이 걸어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십시오! 보십시오, 그 책은 하늘에서도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들은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300 말하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창세 전에 그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301 그러나 그 구속을 나타냈던 첫번째 일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책을 취해서, (영광을!) 그 책을 펴고, 일곱 인을 떼서 그의 일곱째 천사에게,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도록 땅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회중이 크게 기뻐한다--주] 바로 그렇습니다. 오,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명과 외침과 할렐루야 소리와, 기쁨 부음과 능력과 하나님께 영광과, 표명이 일어났습니다! [회중이 계속 환호성을 낸다--주]

302 그런데 거기 서 있던 우리의 형제 늙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는, “어휴, 하늘에 있는 만물과 땅에 있는 만물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멘! 아멘! 축복과 존귀와 능력과 권능을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돌릴지이다.’ 하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Eng. p. 100)

303 그 일곱 인이 떼어졌을 때,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는지 보십시오! 요한은 들여다 보고 시간의 장막을 찢어서 보고는 “저기에 내 이름 요한이 있구나.”하고 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 오!

304 그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만물이”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크게 소리질렀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만물이, 땅에 있는 만물이, 땅 아래 있는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과 그밖에 모든 것들이 내가, ‘아멘! 축복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부가 그에게 속할지이다,’ 하는 소리를 들으매” 아멘!

305 왜 그렇습니까? 구속주인 어린 양, 우리의 근족이 중보의 보좌를 떠나 그의 소유를 취하기 위해 여기로 걸어나왔다는 계시를

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

곧 어린 양이 늘 그의 곁에 있게 하려고,
 신부를 데리고 가리라,
 하늘의 만군이 모이리.
 오, 흠없는 흰 옷을 입은 온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런 모습일까.
 예수와 함께 우리 영원토록 다스리겠네.

오, 주인께서, “와서 먹으라”고 하시네,
 (말씀으로) “와 먹으라.”

306 오, 저는--저는--저는 뭐라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
 죠.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어느 때건 예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네(지금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무리를 먹이신 그 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분.

307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다.”라고 말씀
 하신 그 분. 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을 약속하신 그
 분. 이런 말을 하신 그 분. 지금 이런 일들의 계시가 나타내어지
 는 때에 있는 그 분이,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 내 형제
 여,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잠깐 머리를 숙입시다.

308 내일 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첫째 인을 때보기로 합시
 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첫째 인을 떼주시고 “창세
 부터 감춰져 있던” 이 계시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신다면 말입니
 다.

309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죄인 친구들, 또는 미지근한 교인
 들이여,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석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출석만 하고 있다

면,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도 그럭저럭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탄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보혈로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죄를 지워 없애는 뭔가로 나와야만 합니다.

310 여러분이 아직까지 공중에서 어린 양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제 사명으로, 천사에 의해서 빛기둥에 의해서 제게 주어진 제 사명의 권능으로, (Eng. p. 101)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땅의 교회인 집회소에 참석만 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311 증보자께서, 제가 아는 한은, 아직도 증보를 하시면서 보좌에 계실 동안에 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고 싶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증보자가 계시지 않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일곱째 교회 시대를 본다면,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가 마지막 시대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입증된 영이 보여 주시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아 있겠습니까? 죄인 친구들이여, 오십시오.

312 주 예수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임박한 시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각이 다가오는 것을 기쁘게 바라봅니다. 그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지금껏 알던 시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거절한 자에게는, 가장 슬픈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표현할 말을, 앞에 놓여진 고통과 슬픔을 표현할 말을 글자로 옮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를 위해서 앞에 놓여진 축복들을 표현할 글자로 된 말도 없을 것입니다.

313 아버지, 여기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가 아직도 속죄소에 있다면, 어린 양이 보좌에서 그들의 마음 속으로 걸어나오시고 그들은 구원을 잃었다는 것을 계시로 나타내 주십시오. 피문은 손으로, “올 수 있을 때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314 주님, 제 기도와 함께 제 설교 메시지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를 숙인 채로.

315 만일 여러분이 이런 요청이나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만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성자의 중보에 의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을 잃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으로 한 행위나, 여러분이 행한 것, 선행에 의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잃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머니의 기도나, 어머니의 의로움이나, 아버지의 의로움에 의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잃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감흥이나 어떤 이상한 느낌이나 어떤 방언을 하거나 춤을 추면서 느끼는 감정에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그것이 전부이고, 개인적으로 어린 양을 모르고, 주님을 모른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그 문제를 지금 곧 하나님과 바르게 만드십시오.

316 마음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그저 단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함 속에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믿는 자마다 더해가더라.”고 말했습니다.

317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동안, 여러분이 그 한 가지 영원한 결정을 내리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는 ‘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은 하나의 “둘”입니다. 그러나 그 둘을 자르고 건물에 맞게 다듬을 수 있는 석공이 없다면 그 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Eng. p. 102) 성령이 현재의 여러분을, 마땅이 되어야 할 상태로 자르게 두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단지 형식적인 교인이라면, 죄인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시간에, 그리스도 없이, 성령이 없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318 이제, 주님, 저는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이 이

른 그대로, 그리고 저는 말씀과 더불어 당신께 맡긴 자들과 함께 나옵니다. 주님, 오늘밤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319 만약 그들 삶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은유한 임재를 모르거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불같은 성질이 나 무관심이나 이기심이나 무언가가 이 위대한 것을 그들로부터 막았다거나 막고 있다면, 어떤 신조나 어떤 감흥이 하나님의 교제의 은유함으로부터 그들을 막고 있다면, 지금 그것을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320 그런데 그 어린 양, 보좌의 복도에서 나오는 신비한 빛 사이로 보좌로부터 걸어나오신 피흘리는 거룩한 근족이 그의 기업을 주장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밤,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각자가 엄숙하게 결정을 내리게 해 주시고, 그들을 잘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듬을 수 있는 그분에게만 자기 자신들을 바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321 자, 엄숙하게 기도하는 동안, 저는 이것을 마음 속에서 인도함을 느끼고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기자신을 입증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교파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제 말은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엄숙하게 그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현재의 여러분을 여러분이 의당 되어야 하는 상태로, 잘라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어나서 그렇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것 모두를 충족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322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더이상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고 다만 당신의 말씀을 인용할 뿐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서 있습

니다. 이 휴거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첫째 인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도 전에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323 그런데, 아버지, 저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저는, 당신의 종으로서 위대한 증보자되시는 그리스도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저도 그들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밤 피흘리는 제물이 있는 하나님의 상아빛 보좌 위에. 어느 때라도 보좌에서 나와 그의 소유를 주장하러 나오시면, 그렇게 되면, 더이상 자비가 없고, 그것은 심판의 때입니다. (Eng. p. 103)

324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빛고 자르고, 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산 돌들로 다듬도록 기꺼이 맡기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그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325 그런데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내가 내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오늘 밤 모든 사람들 앞에 거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시인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약 그 고백이 그들 마음 속 깊은 데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은 것처럼, 정말로 당신께서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증보하고 계시고 희생양의 깨끗케하는 보혈의 은혜와 자비의 영역 안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6 자, 지금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저기에 있는 이 젊은 남자 분과 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와 정죄의식이 사라짐을 느끼셨습니다. 좀 일어나 주십시오, 그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그들과 악수를 하시고, “형제님, 저는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하고 말하십시오. 그들과 악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시길 빕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나머지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기도하겠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오, 오늘 부르시네!
예수가 부르시네!
오늘 부드럽게 부르시네!

327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주님은 놀라운 분 아십니까? ["아멘."] 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 주님, 저를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328 "모이기를 폐하는 불신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29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 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일곱 인의 비밀이, 떼어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증보해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330 이제, 저는 우리의 고귀한 형제, 담임목사님인 네빌형제에게 이 예배를 맡기겠습니다. 몇분이나 네빌형제님을 사랑하십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우리 모두 그를 사랑합니다. 네빌형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빌형제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일곱 인의 계시

The Revelation Of the Seven Seals

이 열 개의 메시지는 원래 윌리엄 매리언 브래넘형제가 미국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에 있는 브래넘 성막에서 전한 영어 설교인데,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출판하였습니다. 이 한국어 번역은 1994년 보이스 오브 갓 리코딩즈 사(Voice of God Recordings)에서 발행하여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 책의 판권은 본사에 있습니다. 이 책은 윌리엄 브래넘 복음전도회의 허락없이 매매나 복제나 번역이나 기금 조성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1967년 영문으로 발행. 1993년 영문으로 재판.

1994년 한국어로 인쇄.

Copyright notice

All rights reserved. This book may be printed on a home printer for personal use or to be given out, free of charge, as a tool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book cannot be sold, reproduced on a large scale, posted on a website,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or used for soliciting fund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Voice Of God Recordings®.

For more information or for other available material, please contact:

VOICE OF GOD RECORDINGS
P.O. Box 950, JEFFERSONVILLE, INDIANA 47131 U.S.A.
www.branham.org

Copyright notice

All rights reserved. This book may be printed on a home printer for personal use or to be given out, free of charge, as a tool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book cannot be sold, reproduced on a large scale, posted on a website,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or used for soliciting fund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Voice Of God Recordings®.

For more information or for other available material, please contact:

VOICE OF GOD RECORDINGS
P.O. Box 950, JEFFERSONVILLE, INDIANA 47131 U.S.A.
www.branham.org